

3.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주요 산업별 협력방안

-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에 따라 고부가가치 완성재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세계시장내 한·일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상호 공존을 위한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 더구나 양국의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수요 기반 확대가 절실한 실정임
- (주요 경제협력 방안) 무엇보다 양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양국 공조에 따른 공급 조절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이와 함께 일본과의 기술·자본 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 경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공용화, 그리고 제3국 시장으로의 공동 투자 등을 통한 신수요 창출 노력이 요구됨
- (보완 과제) 양국 업계와 정부에 있어서는 산업 부문의 경제협력 강화 위한 상설협의회 등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한편 한·일 협력을 중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국간간 무역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

- 한·일 산업의 분업 구조

- 90년대 초반까지 양국은 경제발전 단계의 격차로 인해 상이한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음
- 일본은 기술적 우위를 토대로 핵심 자본재와 부품, 소재와 고부가가치 제품(전기·전자, 공작기계, 자동차 등)을 생산하고, 한국은 범용 자본재와 부품(선박, 일반기계, 범용부품 등)을 생산하는 분업 구조를 유지

- 양국간 경쟁 격화

-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따라 고부가가치 완성재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양국간 경쟁이 격화됨
-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술을 도입·활용하여 기초 소재 및 조립가공 등 자본집약적 산업에 진출하면서 주요 수출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 더구나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산업구조조정, 엔고 등으로 일본 기업의 對아시아 진출이 급증하고, 아시아 각국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 범용산업 육성책을 강화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의 韓日간, 아시아 국가간 경쟁이 격화됨

<주요 시장에서의 한·일간 수출경합도¹⁾ 추이>

	전상품				공산품			
	89년	91년	93년	95년	89년	91년	93년	95년
미국시장	0.479	0.457	0.496	0.508	0.477	0.453	0.496	0.507
중국시장	0.469	0.486	0.505	0.510	0.472	0.501	0.512	0.521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시아 무역·투자의 구조변화와 향후 과제』, 1997.

- 경기 부양의 필요성 증대

- 우리나라는 IMF의 지원을 받아 경제 회복을 시도하는 중이고, 일본도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동남아시아 각국의 경제위기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음
- 양국이 모두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상호 시장 확대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내 공동 프로젝트 개발이나 해외 시장의 공동 진출 등을 통한 수요 확대가 필요함

□ 주요 경제협력 방안

- 생산 협력

- 호혜적 원칙에 입각해 산업 생산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한·일 양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 범용기술산업인 경우 양국 공조에 따른 공급 조절이 상당한 효과를 지닐 것임

- 기술 협력 강화

- 일본의 對아시아 직접 투자 확대로 이들 지역과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축소되고 있고, 구미 선진국들로부터의 기술 이전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임
- 이러한 입장에 처한 우리나라로서는 투자 환경 개선 등으로 일본의 기술 및 자본 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을 통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야 할 것임

- 부품 공용화

- 과거 일본의 해외 법인은 모기업과 연결하여 현지와는 연계되지 않는 생산 구조

1) ESI(Export Similarity Index): 1에 가까울수록 양국 수출 구조의 유사성이 커짐. 즉 수출 시장에서의 경합 관계가 심화됨

를 구축, 아시아 역내에서도 자사 혹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였음
 · 그러나 최근 일본 기업들의 아웃소싱 확대로 한국으로부터의 부품 조달 및 공용화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경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소재 및 부품 공용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新수요 창출

· 일본의 규제 완화, 한국의 수입다변화조치 등 양국간의 소극적인 수요 확대뿐 아니라, 몇개 업종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제3국 시장으로의 공동 투자나 아시아 지역내 공동 프로젝트로 참여 등을 통해 신수요 창출을 추진할 수 있음

<한·일의 주요 제3국 공동투자 사업>

업종	협력기업		형태	내용
	한국	일본		
승용차	대우	도요타	자본참여(인도)	대우가 인도의 도요타합작회사에 자본 참여
철강	POSCO	新日鐵, 기와사끼 제철 등	합작(태국)	양국 합작으로 태국에서 냉연강판 생산
반도체	삼성	NEC	생산제휴(유럽)	NEC가 스코틀랜드에서 생산한 4M DRAM을 삼성이 최종제품화해 EU에 판매
플랜트	현대	미쓰이	공동수주(태국)	태국 비료공장 공동수주해 건설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전략적 제휴 실태와 활용방안」, 1997.

□ 주요 업종별 경제협력 방안 및 효과

- 자동차 산업

· 기술 협력: 환경·안전 관련 첨단 신기술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막대한 기술 개발 자금 및 개발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한편, 구미 선진 업체들의 배타적 기술 제휴 네트워크에 공동 대응
 · 부품산업 협력: 일본 부품업체들의 기술 및 자금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일시적 경영 위기에 빠진 국내 우량 업체들에 대한 외자 유치 확대하고, 선진 기술과 품질 관리 기법을 도입

- 반도체 산업

· 기술 협력: 복합칩(메모리-논리素子), 시스템 LSI 등 메모리와 논리소자 복합 기술을 요하는 제품을 공동 개발. 이와 함께 차세대 초고속 메모리(DDR싱크로닉스, 싱크링크, 램버스)의 표준화 경쟁 및 영상처리 표준MPEG4에서의 표준화 경

쟁 등에서 공동 보조. 그리고 256M용 300mm 웨이퍼 공정 개발에서 기술 협력과 장비 표준화

- 석유화학 산업

- 자본 유치: 현대·삼성의 통합 법인이나 국내 타업체에 대한 자본 참여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의 건전성 확보
- 제휴를 통한 제품 상호 공급: 일본 업체들은 97년부터 해외 업체들과의 제휴를 추진중임. 우리나라 업체와 제품구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휴를 통한 제품 상호 구매·공급 방안도 효과적일 것임
- 기술 협력: 저기술 범용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제품 구조 개선을 위해 기술 이전이나 공동 기술 개발 추진 필요

- 철강 산업

- 생산 협력: 한·일 철강업계의 선진국 시장 수출 집중으로 세계 시황 악화와 함께 수입 규제 완화의 확산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양국 업계의 공급 조절 등이 시급함. 또한, 세계 철강 경기의 변동 심화로 생산 및 경영의 유연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한·일 철강업체들의 원료 조달 및 물류, 판매 제휴가 필요함. 이와 함께 구미 대형 철강업체간 통합 추세에 대해 공동 대응
- 기술 협력: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미니밀의 판재류 생산 기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高爐와의 원가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환경오염 저감 관련 기술 경쟁이 강화될 것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기술 개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양국 업체간 공동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기타 업종

- 화학섬유: 한국의 생산 시설에 대한 일본의 OEM 임가공, 일본의 해외 신규투자 시 한국의 설비를 구매하거나 임대해 원가 절감 및 시장 공급량 조절
- 철도차량: 제작사 및 부품사, 종합상사 등에 대한 일본의 자본 참여, 제어기술의 설계 및 제작, 통신기술 설계, 시스템 엔지니어링 등에서의 협력
- 항공기: 중형항공기 공개발에 대한 한·일·중의 공동타당성 조사 및 개발과 판매 법인 설립 등

□ 보완 과제

- 협력체제의 제도적 뒷받침

- 산업 부문의 경제협력 강화 위한 상설협의회 등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의 민간부문과 정부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업협력기구 및 기술협력센터 창설

- 중국과의 산업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

- 세계 경제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은 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해 자체의 실질적 협력은 미비
- 수입 시장, 생산 기지, 자본 유입국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중일 경제협력은 상호간 무역창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박 병 칠 bcpark@hri.co.kr ☎724-4048)